

이름 _____ 이윤지 _____

1. 파견대학 관련

파견대학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Marcos
파견기간	2011.8.24 ~ 2012.5.24
귀국여부	네
수강과목(2011 Fall) 및 과목별 수강평가	<p>Human Physiology: 수업은 대부분 말로 설명을 통해서 진행되고, 수업이 끝나기 전 다음주 퀴즈에 대한 예상문제를 미리 가르쳐 주어 학생들이 중요한 부분만 공부하기 쉽게 해줌</p> <p>Intro to cinema: 매시간마다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에 쓰여진 촬영기법이나 감독의 의도에 대해 공부하였는데 관련 전공이 아니라 모르는 어휘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p> <p>Beginning Japanese: 매시간마다 퀴즈를 통해 단어를 암기하게 했고, 말하기 평가, 쓰기 평가를 통해 학생의 실력을 점검했다.</p> <p>Computers & Music: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을 작업하는 과목인데, 수업은 주로 유명프로그래머의 음악작업을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감상문을 쓰게 했으며, 최종프로젝트로 컴퓨터음악을 만들게 함.</p>
수강과목(2012 Spring) 및 과목별 수강평가	<p>Physiology of exercise and health: 체육학과 학생들에게 우리 몸의 원리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과목 같다. 어휘가 너무 어렵고, 교수의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p> <p>Beginning Algebra: 중고등학교 수학수준의 과목. 교수가 수업시간에 예제를 풀어주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수업진행. 매 주말에 퀴즈.</p> <p>Intermediate Piano: 피아노 코드부터, 기본에 충실한 수업. 매시간마다 새로운 곡을 연습하고, 중간 기말로 개인무대에서 리사이틀을 가짐.</p> <p>Physical science around us: 기본적인 화학, 물리 수업. 책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매 단원이 끝나면 퀴즈 후 문제풀이를 했는데, 교수의 설명이 부족했다.</p>
Tuition 외 지출한 비용	따로 낸 비용은 없고, 학교 보험이 필수여서 학기마다 400불?500불? 정도를 낸 것 같습니다....가격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2. 생활전반 관련

숙소	기숙사생활(University Village)
숙소비용	한 달에 \$665
숙소평가	많은 학생이 같은 suit을 사용하는데 가장 저렴한 방이 \$665여서 굉장히 비싸다. 각종 편의시설, 부엌, 화장실 등등은 잘 되어 있고, 학교와도 도보로 10분거리이다.
식사	기숙사에 부엌이 있기 때문에 직접 요리해서 먹거나 레스토랑에서 사먹음
식사비용	음식점일 경우\$10~\$20
식사평가	
보험	학교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샀습니다.
한달 생활비(대략)	저는 이곳 저곳 놀러 다니고 해서 한 달에 100만원 정도 그 이상?

3. 교환학생 파견 전 한국에서 미리 알고 갔으면 좋았을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미국은 실내에서도 신발을 벗지 않기 때문에, 한국생활에 익숙한 우리에게 처음에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실내용 슬리퍼 등을 챙겨가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은 전압이 110V여서 한국가전제품을 가져갈 경우에는 전압을 변압기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 외에 또 한가지 당황했던 것은 외국 화장실은 우리나라처럼 배수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샤워 시 샤워커튼뿐만 아니라, 샤워매트가 꼭 필요합니다. 그걸 모르고 처음에 그냥 샤워했다가 물이 화장실 밖까지 넘쳐서 굉장히 닳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외에는 문화차이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들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인사도 먼저 건네고, 안부 인사 같은 걸 꺼내는데 처음에 그게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의도하지 않게 상대방에게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사람의 주변이나 공간을 지나갈 때 'excuse me'라고 양해를 구한다던가,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고 기다려 주는 문화의 차이가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습니다. 이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 까 생각합니다. 또한, 음식점에서의 기본 대화라던가 특정한 상황에서의 영어공부를 더 하고 왔었으면,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4. 결과보고서 (자유형식) : 글자크기 10, A4 1장 이상

-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영어도 잘 들리지 않고, 문화가 너무 달라서 혼자 생활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6명의 룸메이트와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처음엔 혼자 아시아인이고 말도 잘 통하지 않아 친해지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했고, 같이 어울리려고 하다 보니 외국인 친구들이 쓰는 어휘, 문장에서 배우는 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귀가

트였고,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하는 농담도 알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리스닝을 늘리기 위해서 수업을 녹음하고 집에서 다시 듣는 것을 반복하였는데, 이렇게 하니 리스닝만 늘 뿐 아니라 수업시간에 놓친 부분도 따로 필기할 수 있어서 유용했습니다. 그 외에는 친구들과 놀거나 미국에서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있던 곳은 도시외곽으로 굉장히 한적하지만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이다 보니까 연중 날씨가 맑고, 비가 잘 오지 않으며 하지만 일교차가 있어서 밤에는 겉옷을 챙겨 입어야 했습니다. 캠퍼스는 우리 학교정도? 순천향대학교보다 살짝 작은 느낌이지만, 내부 시설은 깨끗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무료로 탕고나 에어로빅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 하며, 피아노 연주회, 영화, 연극공연도 값싼 가격으로 캠퍼스 내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있었을 때는 와인 시음회나, international coffee hour가 있어서 매달 각 나라에서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고, 함께 어울릴 기회도 있었습니다. 학교가 산과 호수근처에 위치해서 간혹 cougar나 사슴, 토끼, 다람쥐 같은 야생동물이 지나가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차로 20분 거리에는 태평양을 마주보는 해변가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계절에 상관없이 서핑을 즐기고 산책을 합니다. 학교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에 큰 식료품점과 몇 개의 음식점이 있는 것이 전부 였기 때문에 쇼핑을 하거나, 한국음식을 먹고 싶을 때는 sprinter나 버스를 타고 샌디에고에 가야했습니다. 미국생활에 점점 익숙해지고 학교에 공부하러 온 international students들과 친해지기 시작하면서는 그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며 생활했습니다. 차가 있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말에는 샌디에고에 내려가서 쇼핑을 하거나, 여행지에 놀러 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Thanksgiving day에는 시애틀, 샌프란시스코에 친구들과 여행을 다녔고, 겨울방학에는 로스앤젤레스, 라스베가스등 근처 서부에 여행을 다녔습니다. Halloween day 에는 다운타운에서 열리는 파티에도 놀러가고, 메이드 분장을 하고 친구네 홈스테이에 놀러가서 'trick or treat'을 외치고 사탕도 받아보고 다양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는 중국인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새해에는 친구들과 함께 만두도 빚고, 미국인 친구들도 초대해서 파티도 열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그들의 문화도 배울 수 있었고, 다른 인종이지만 영어로 대화가 가능 하고, 서로를 알아 간다는 게 너무 즐겁고 뿌듯했습니다. 제가 국제면허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귀국하기 전 세달 정도 친구들과 차를 렌트해서, 주말이면 로스앤젤레스나 샌디에고에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차로 1시간40분 거리, 샌디에고는 40분 거리였고, 미국은 도로가 크고 하이웨이가 잘 되어 있어서 이동하기 편합니다. 샌디에고 남쪽에 위치한 Coronado Island와 샌디에고와 Coronado를 잇는 다리는 San Diego의 명소이며, 이곳에서 타는 페리는 샌디에고 다운타운과 일몰을 감상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봄방학에는 친구와 함께 뉴욕으로 일주일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여유롭고 친절한 분위기와 다르게 뉴욕은 모든 사람들이 분주하고, 바빠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도시인만큼 그 현란한 조명과 밤거리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내가 뉴욕에서 여기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고, 삶 곳곳을 구경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신기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지난 교환학생 파견 생활을 생각해보면,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것은 그곳에서 만난 소중한 친구들과, 여행입니다. 지금도 캘리포니아 곳곳 자주 가던 거리, 바닷가, 친구들이 많이 생각나고 그립고, 앞으로도 영원히 좋은 추억으로 간직 될 것 입니다.